

결혼만족도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 중·노년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Needs of Education for Elder Couples

- Centered the Mid-Later Life -

홍달아기** · 이남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가정아동복지학 전공

Hong, Dal-Ah-Gi** · Lee, Nam-Joo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mand for the education of elder marital couples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four elements such as confidence and affinity, mutual respect, communication, and cohesion. Each ele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ut of these variables, age, academic career, health, occupation, and salar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4 element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2. The couples with shorter marriage period, with religion, and belonging to a nuclear family, and doing social activities wer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highly.

3. The higher the confidence and affinity, and cohesion between couple, the higher the demand for education program. The lower the score of communication between couple, they participated more often in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confidence and affinity between couple, the educational program with partners is necessary.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demand, elder couples, educational program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90년에는 전체 인구 중 약 12.5%이었지만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2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04).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는 2019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 높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점차 높아져 노인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노부모의 부양의식 약화와 노인 스스로의 독립의식으로 노인들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녀와 별거를 희망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어서 자녀출가, 정년퇴직 이후 노부부끼리 지내게 되는 부부노년기가 연장되고 있다. 국토연구원(부산일보, 2004.12.14)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지방 소도시 65세 이상 8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9%가 '앞으로 자녀와 따로 살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2002년 통계청 조사당시의 45.8%보다 14.1%나 높은 수준이다. 현재 따로 살고 있는 노인가구 비율이 43.9%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황혼독립' 욕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황혼독립욕구는 단독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족의 증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Hong, Dal-Ah-Gi

Tel: 063) 850-6652, Fax: 063) 850-6047

E-mail: dalhong@wonkwang.ac.kr

또한 전반적인 가족생활주기의 변화는 막내자녀의 독립을 끝낸 이후의 '빈 둥우리시기(empty nest period)'가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지면서 중년후기와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할 기간도 늘어나게 됨(김태현·한희선, 1995)에 따라 중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본다. 과거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부부관계는 그다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즉 한국 가족에서 중심적인 가족관계는 부자관계에 있었으며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관계로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김태현, 1993).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등장과 같은 사회변화로 부부관계는 가족관계 중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각되고 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몸이 아플 때 최우선의 가족부양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년기이후의 결혼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onnidis, 1989; Gilford, 1986). 또한 중년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생활범위가 가정으로 축소되어 부부나 자녀 등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노인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특히 노년기의 연장으로 노부부간의 만족도가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혼관계는 노부부들의 내적인 안정감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만족스런 관계는 생의 마지막 단계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보다 일찍 노령화를 경험한 서구사회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년기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혼특성, 결혼만족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장기결혼을 유지하거나 충족하게 하는 요인들의 탐색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들 연구들(Lee, 1978; Anderson, et.al., 1993)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한 노부부가 다른 연령층보다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며 비교적 높은 결혼만족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부부의 심리적 적응은 결혼관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노년기의 연장, 노부부만이 거주하는 1세대 가구의 증가,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 희망을 증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의 재혼에 대한 관심도 증가(손승영, 1994) 및 노년부부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탐색의 증가(이가옥, 2000)등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결혼 해체의 경향과 더불어 나타나는 황혼기 이혼의 증가나 톱크족(Two Only No Kids)의 출현 등은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행해진 노년기 부부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부부가 지각한 결혼만족이나 적응을 본 연구(김

태현·전길양, 1997; 김혜경, 1996; 김수현, 1999), 노년기 부부의 성역할 태도나 은퇴 후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는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신숙, 1997) 그리고 노년기 부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자아통합감, 생활만족도 등을 살펴 본 연구(홍제영, 1999; 송영미, 2000; 김선우, 2002)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부부가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욱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사회, 심리적 적응과 행복감이 높다(Lopata, 1993)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노인부부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노년기부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과 교육내용 및 방법을 파악하기위해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노년기부부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노년기부부관계는 노인이 되기 전부터의 부부관계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50대 이후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재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원하는 노년기부부교육요구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간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노년기부부관계 향상과 안정을 위한 요인을 찾아내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질 높은 노년기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노년기부부관계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만족도

가족주기 단계로서의 중노년기는 생물학적, 문화적 변동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한 최근의 현상으로, 부모역할의 감소와 함께 비로소 독립적, 자율적 존재로서의 자아의 욕구, 필요, 성장발달에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김명자, 1989)로 가족 간의 역할관계에 중점을 두며, 자녀들의 독립이후 허탈과 무력감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였다. 이기숙(198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만족도는 서구의 U형 곡선이기보다는 누운 S형(∞형)에 가까워 가족주기 초기에는 높고,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는 감소하다가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는 중·고등학생기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자녀 독립기 및 탈부모기를 맞는 노년기에는 만족도가 감소하여 가족주기 마지막 단계의 부부 적응 및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역할은 여생동

안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년기가 길어지는 가족생활주기 변화로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노년기에 활력있고 보람있는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람일수록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서로 지지해 주는 관계를 보인 부부는 은퇴에 대한 적응도 역시 높은 편이다(서병숙, 1991). 우리사회보다 일찍 노년기연장에 직면한 서구에서는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년기 부부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결혼특성, 결혼 만족을 이루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들 연구들은 노년기 부부가 친밀한 사적 관계로서 노년기 결혼생활이 삶의 질이나 생활만족도, 사기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결혼생활 행복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 공동여가 활동의 빈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결혼의 안정성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부부가 자기 개방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 이해도와 결혼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오경희, 1997) 등은 부부관계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노년기의 적응이나 만족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오랫동안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 오면서 함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온 부부에게 있어 노년기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며 이 시기의 조화로운 부부간의 적응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의 만족이나 자아 통합감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은 성별, 결혼연수, 원가족의 영향, 가족주기,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등을 포함하는데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낮고, 연령이 낮거나 신혼기 부부들이 일관되게 결혼만족이 높으며,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결혼만족과 신뢰성있는 정적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원가족 요인은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과 배우자 가족의 문제나 개입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김수연, 2001)되고 있다.

노년기의 결혼만족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노년기에 접어들면 은퇴와 자녀의 출가로 인해 다수의 역할에서 물러남으로써 부부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이 시기에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높아진다(Anderson, 1993; Dorfman & Heckert, 1988; Rollins & Cannon, 1974)고 하는 측면으로 탈 부모기에 자녀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년기가 되면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측면인데, 남편이

은퇴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갈등이 심화되므로 노년기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본다. 셋째, 결혼초기의 적응이 중년기의 안정된 결혼생활과 연결되어 노년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Brubaker, 1992)는 견해이다.

전반적으로 노년기는 다른 주기에 비해 비교적 역할이 적어지며 특히 부모역할의 감소는 부부관계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부부만의 가치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서동인·정현숙, 1994).

이상을 종합해보면 결혼만족도는 부부 및 가족과의 관계적인 변인과 부부 개인의 개인적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부부교육

부부관계는 육체적 결합은 물론 정신적·심리적·정서적·경제적 결합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며,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계이지만 부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며 친밀한 부부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각 개인이나 부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Satir, 1972)고 보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교육에 의해 부부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여 부부성장파 부부관계의 질 향상,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부부교육프로그램을 대상과 교육내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별로는 중년기 부부(김영자, 1998; 이주미, 2001)와 신혼기부부 프로그램(최혜경·노치영·박의순·1994; 유은희·정현숙, 1995), 예비부부(박미성·김득성, 1997)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조은숙·고선주·옥선화, 1998)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부부교육 프로그램(김순옥, 2001; 이성희, 2002; 최규련, 2002), 유아기가족 부부의 교육프로그램(방현주·이기숙, 2002)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내용별로는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 지각의 차이와 문제해결방식 차이 인식, 의사소통, 결혼관과 부부의 역할, 성 등을 다루었다.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내용으로는 결혼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이해, 역할기대, 의사소통(듣기/말하기, 친밀감), 갈등해결, 성, 재정관리를 내용으로 하였다. 맞벌이 가족 대상 부부교육 내용은 역

할긴장의 원인 이해, 가족체계의 강화전략, 가사/육아분담 전략, 시간관리전략, 역할 줄이기 전략, 바람직한 직업관/가족관정립의 주제로 교육하였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늙어가는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노화에 대한 심리적 준비라는 주제로 중노년기의 전반적인 교육과 서로에 대한 이해, 듣기 기술과 말하기 기술, 갈등 해결, 관계 재정립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은 부부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부부관계 이해하기, 배우자 마음공감, 건설적 감정표현 인정해주기, 갈등해결 기술, 의사소통, 친밀성 훈련, 칭찬·격려 받아들이기, 자아인식, 성역할, 결혼관, 부모자녀관계 등 대화상태의 이해와 대화개선의 필요성 인식, 대화를 통한 마음 검토 및 조정, 효율적으로 말하기, 적극적으로 듣기, 바람직한 대화법, 행복을 위한 욕구 다루기, 결혼생활과 질적인 세계, 좋은 상황 내 것으로 만들기, 건강한 감정적 상호작용,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내용으로 교육하였다.

지금까지의 부부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중심의 교육내용이 각 생애주기 마다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대상은 신혼기와 중년기 부부, 예비부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노년기부부가 제외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년기부부는 오랜 세월 적응해왔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적게 지각했거나, 잘 적응하고 있는 관계로 간주되어 연구영역에서 제외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노년기의 배우자는 여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이 시기의 결혼만족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Connidis, 1989; Gilford, 1986)되고 있어서 노년기부부교육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요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중노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이들의 노년기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측정도구는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척도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결혼만족도, 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변인을 추출하여 성별, 나이, 학력, 결혼생활년수, 종교, 은퇴 전 직업, 현재의 직업,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가족형태, 주관적 생활수준, 월수입, 생활비관리, 사회활동 등의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결혼만족도

중노년기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김혜경(1996), 허윤정(1997)의 연구와 Roach(1981)의 척도를 이인수·유영주(1986)가 변안한 척도를 바탕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방식을 적용하여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 3개를 제외하고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속성을 감안하여, 요인 1은 '신뢰와 친밀감', 요인 2는 '상호존중', 요인 3은 '의사소통', 요인 4는 '응집력'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 비율은 신뢰와 친밀감 33.1%, 상호존중 10.3%, 의사소통 6.1%, 응집력 5.2% 이었고, 전체분산 비율은 54.7%로 4개의 하위요인이 21개의 전체문항의 54.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신뢰도는 신뢰와 친밀감($\alpha=0.84$), 상호존중($\alpha=0.75$), 의사소통($\alpha=0.76$), 응집력($\alpha=0.66$)이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8$ 이었다.

3) 노년기부부교육요구

중노년기 부부들의 노년기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어성연(1994), 남현숙(199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필요성, 교육내용, 교육내용의 중요도, 참여경험 유무, 참여의향, 교육시간대, 교육량, 교육진행방식, 부부

공동참여의향, 부부공동불참여유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3년 8월 전북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중노년기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자와 훈련 받은 조사자들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조사자는 W대학교 전공 관련 대학원생으로 이들에게 본 연구 목적과 내용, 조사방법,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80부를 배부하여 355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이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326(남자 151명, 여자 175명)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0.0 Program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한 다음,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1)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ANOVA검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3)의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 노년기부부교육 내용과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성별분포는 여자 53.7%, 남자 46.3%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85명(56.7%)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졸(27.3%), 고졸(28.8%), 초졸(33.2%), 대졸(10.7%)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년수는 30~39년이 107명

(32.8%)으로 가장 많았다. 은퇴전의 직업은 농·임·축·수산업(19%)이 가장 많았고 노동·기타(17.2%), 사무직(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직업은 노동·기타(45.7%), 농·임·축·수산업(20.6%), 서비스업(13.5%)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58.2%)가 많았고, 본인의 건강상태는 보통(39.6%), 나쁜 편(36.2%), 좋은 편(24.2%)으로 응답하였다.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보통(35.9%), 나쁜 편(35%), 좋은 편(29.1%)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50만원 미만(31%), 51~80만원(17.2%), 81~110만원(16%)로 응답하였으나 200만원 이상도 11.7%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은 26.1%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이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는 234명이 아내가 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결혼만족도의 요인은 신뢰와 친밀감, 상호존중, 의사소통, 응집성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다.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은 결혼만족도 요인 중 '상호존중'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즉 남자가($M=3.61$) 여자($M=3.36$)보다 '상호존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 남녀간의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강미선, 1991; 이우복, 1993)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연구결과(서광희, 1992; 고정자, 1998; 이신숙, 1997; 이정은, 2000; 박성호, 2001)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가 동일한 결혼생활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최규련(1988)은 부인이 남편보다 가족 지향적이고 가정에 대한 자원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결혼생활에 대해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남편보다 낮다고 해석하였다. 서광희(1993)는 여성의 가정중심성과 가정 내의 역할에서 정체감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역할기대 수준이 높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가정생활 밖의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남편들에 비해 가정에만 얽매어 있는 부인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표 1〉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인	구분	신뢰와 친밀감		상호존중		의사소통		응집력	
		M	SD	M	SD	SD	M	SD	
성별	여자	3.39	0.65	3.36	0.67	3.52	0.69	3.41	0.61
	남자	3.40	0.61	3.61	0.65	3.57	0.61	3.49	0.60
	T(P)	-0.209(0.834)		-3.390(0.001)		-0.612(0.541)		-1.237(0.217)	
연령	50세~60세	3.45 b	0.62	3.43	0.68	3.56	0.66	3.42	0.57
	61세~70세	3.41 b	0.64	3.53	0.61	3.56	0.62	3.48	0.65
	71세~이상	3.17 a	0.59	3.56	0.74	3.44	0.69	3.50	0.66
F(P)	3.836(0.023)		1.046(0.353)		0.687(0.504)		0.392(0.676)		
학력	초졸 이하	3.20 a	0.55	3.42 a	0.64	3.41 a	0.62	3.32 a	0.58
	중졸	3.33 ab	0.63	3.34 a	0.69	3.40 a	0.62	3.44 a	0.62
	고졸	3.52 b	0.63	3.55 a	0.63	3.71 b	0.67	3.46 a	0.59
대학 이상	3.84 c	0.56	3.82 b	0.70	3.84 b	0.60	3.82 b	0.56	
F(P)	11.969(0.000)		5.024(0.002)		7.704(0.000)		6.339(0.001)		
도입기간 수	15년~19년	3.33 ab	0.61	3.08	0.71	3.52	0.67	3.45	0.45
	20년~29년	3.62 b	0.56	3.51	0.71	3.69	0.63	3.52	0.53
	30년~39년	3.37 ab	0.66	3.49	0.66	3.52	0.67	3.45	0.66
	40년~49년	3.33 ab	0.68	3.44	0.57	3.45	0.64	3.44	0.62
	50년 이상	3.18 a	0.47	3.57	0.73	3.47	0.66	3.32	0.61
F(P)	4.583(0.001)		1.389(0.237)		1.557(0.186)		0.853 (0.493)		
배고	있다	3.48	0.62	3.46	0.67	3.57	0.67	3.47	0.58
	없다	3.27	0.62	3.50	0.68	3.50	0.63	3.41	0.64
T(P)	2.953(0.003)		-0.410(0.682)		0.993(0.322)		0.836(0.404)		
업종 업종 업종	노동·기타(무직)	3.30 a	0.58	3.39	0.58	3.40 ab	0.72	3.35 a	0.57
	제조업·공업·광업	3.51 ab	0.50	3.75	0.61	3.56 ab	0.37	3.63 ab	0.65
	농·임·축·수산업	3.36 ab	0.59	3.43	0.76	3.31 a	0.71	3.45 a	0.59
	서비스업	3.60 ab	0.70	3.41	0.66	3.78 ab	0.52	3.56 a	0.60
	사무직	3.68 ab	0.64	3.64	0.76	3.74 ab	0.72	3.67 ab	0.64
	행정직·전문기술직	3.84 b	0.52	3.56	0.31	3.55 ab	0.53	3.75 ab	0.84
	전문직	3.77 ab	0.61	4.05	0.69	3.86 b	0.91	4.08 b	0.43
	F(P)	2.814(0.012)		2.002(0.067)		3.049(0.007)		2.988(0.008)	
업종 업종 업종	노동·기타(무직)	3.36	0.65	3.56	0.67	3.55	0.69	3.51	0.65
	제조업·공업·광업	3.35	0.69	3.44	0.67	3.59	0.42	3.27	0.54
	농·임·축·수산업	3.37	0.60	3.35	0.62	3.40	0.67	3.32	0.61
	서비스업	3.36	0.62	3.51	0.61	3.64	0.60	3.42	0.48
	사무직	3.66	0.50	3.73	0.77	3.85	0.32	3.70	0.47
	행정직·전문기술직	3.57	0.58	3.40	1.24	3.40	0.95	3.44	0.43
	전문직	3.60	0.21	3.55	0.27	3.86	0.30	3.30	0.37
	F(P)	0.584(0.743)		1.055(0.390)		1.349(0.235)		1.432(0.202)	
양친 양친 양친	나쁜편이다	3.14 a	0.60	3.45 a	0.66	3.35 a	0.68	3.31 a	0.67
	보통이다	3.42 b	0.59	3.34 a	0.68	3.51 a	0.71	3.40 a	0.58
	좋은편이다	3.53 b	0.63	3.65 b	0.63	3.70 b	0.52	3.59 b	0.56
F(P)	10.168(0.000)		6.869(0.001)		6.950(0.001)		5.714(0.044)		
배우 배우 배우	나쁜편이다	3.11 a	0.60	3.47 ab	0.58	3.44 a	0.65	3.24 a	0.59
	보통이다	3.41 b	0.58	3.35 a	0.72	3.48 a	0.65	3.47 b	0.56
	좋은편이다	3.60 c	0.61	3.62 b	0.67	3.69 b	0.64	3.59 b	0.62
F(P)	17.739(0.000)		4.459(0.012)		5.009(0.007)		9.257(0.000)		
가족 가족 가족	부부가족	3.48 b	0.64	3.51	0.73	3.50	0.69	3.52 c	0.62
	핵가족	3.42 b	0.56	3.51	0.62	3.58	0.61	3.49 bc	0.53
	확대가족	2.96 a	0.53	3.34	0.46	3.64	0.51	3.07 a	0.67
	기타	3.25 b	0.75	3.33	0.73	3.50	0.75	3.25 ab	0.62
F(P)	6.227(0.000)		0.953(0.415)		0.656(0.580)		5.823(0.001)		
주요 주요 주요	잘사는편이다	3.57 b	0.62	3.72	0.66	3.76	0.56	3.48	0.65
	보통이다	3.43 b	0.62	3.44	0.66	3.54	0.65	3.47	0.60
	어려운편이다	3.21 a	0.60	3.46	0.68	3.45	0.70	3.37	0.59
F(P)	5.301(0.005)		2.716(0.068)		2.843(0.060)		0.718(0.488)		
연수 연수 연수 연수 연수	50만원 미만	3.21 a	0.60	3.34 a	0.74	3.34 a	0.69	3.33 ab	0.61
	51만원~80만원	3.29 abc	0.65	3.46 abc	0.60	3.52 ab	0.69	3.28 a	0.57
	81만원~110만원	3.40 abc	0.66	3.36 ab	0.64	3.57 ab	0.70	3.49 abc	0.58
	111만원~140만원	3.46 abc	0.62	3.77 c	0.55	3.68 b	0.54	3.60 bc	0.49
	141만원~170만원	3.57 bc	0.60	3.55 abc	0.58	3.74 b	0.39	3.48 abc	0.68
	171만원~200만원	3.68 c	0.44	3.68 bc	0.47	3.79 b	0.43	3.73 c	0.52
200이상	3.67 c	0.56	3.69 bc	0.75	3.70 b	0.64	3.66 c	0.62	
F(P)	4.44(0.000)		2.985(0.008)		3.304(0.004)		3.335(0.003)		
생활 생활 생활 생활	남편	3.51	0.60	3.34	0.79	3.49	0.73	3.48 b	0.57
	아내	3.36	0.63	3.53	0.63	3.57	0.63	3.43 b	0.61
	자녀	3.01	0.50	3.44	0.42	3.33	0.67	3.00 a	0.61
	기타	3.58	0.75	3.27	0.79	3.53	0.62	3.88 c	0.54
F(P)	2.499(0.060)		1.882(0.132)		0.570(0.635)		3.682(0.012)		
사회 사회 사회	그렇다	3.56	0.59	3.54	0.72	3.68	0.66	3.55	0.56
	아니다	3.33	0.63	3.46	0.65	3.49	0.64	3.41	0.62
	T(P)	2.813(0.005)		0.936(0.350)		2.327(0.021)		1.910(0.057)	

*Duncan 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alpha=0.05$)

결과들을 통해서 성별자체도 결혼만족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누리는 안정감과 혜택이 더 많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결혼만족도 요인 중 '신뢰와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3$),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70세 이하($M=3.45$)가 71세 이상($M=3.17$)보다 '신뢰와 친밀감'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70세 미만인 70세 이상보다 '신뢰와 친밀감' 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혜정(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자 노인들 간에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윤영, 1990; 김혜경, 1996)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이 결혼만족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한 선행연구들(이인수·유영주, 1986)과 상반된 결과이다.

학력에 따라서 결혼만족도 요인은 '신뢰와 친밀감'($P=0.000$), '상호존중'($P=0.002$), '의사소통'($P=0.000$), '응집력'($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대졸이상이 '신뢰와 친밀감', '상호존중', '의사소통', '응집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윤영, 1990; 서광희, 1992; 조병은·송말희, 1993; 홍보선, 1994; 김혜경, 1996; 김미정, 2001; 박성호, 2001; 지혜정, 2002)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시키고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져옴으로써 결혼생활의 정보 및 의견을 나누고 애정을 표현함에 용이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학력은 소득이나 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이 되며 교육자체는 의사소통 기술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가시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은숙(1983)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결혼만족도 요인 중 '신뢰와 친밀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결혼생활연수가 20~29년인($M=3.62$) 사람이 50년 이상($M=3.18$)의 사람보다 '신뢰와 친밀감'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와 친밀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생활년수가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김혜경, 1996; 이선정, 2000; 김미정, 2001; 지혜정, 200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탈부모기 단계에서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고독하고 침체된 시기로 부모의 역

할이 부부에게서 떠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종교는 결혼만족도 요인 중 신뢰와 친밀감($P=0.003$)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M=3.48$)이 '신뢰와 친밀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은퇴 전 직업에 따라서 '신뢰와 친밀감'($P=0.012$), '의사소통'($P=0.007$)과 '응집력'($P=0.008$)의 결혼만족도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행정직·전문기술직($M=3.84$)이 노동·기타(무직)($M=3.30$)보다 신뢰와 친밀감이 더 높고, 전문직($M=3.86$)에 종사했던 사람이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M=3.31$)보다 '의사소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공업·광업, 전문직($M=4.08$)이 노동·기타(무직),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서비스업($M=3.35$)보다 '응집력'이 더 높았다.

현재의 직업에 따라서는 결혼만족도 4개의 요인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신뢰와 친밀감'($P=0.000$), '상호존중'($P=0.001$), '의사소통'($P=0.001$)과 '응집력'($P=0.044$)의 결혼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노인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김혜경, 1996; 김수현, 1999)와 일치한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신뢰와 친밀감'($P=0.000$), '상호존중'($P=0.012$), '의사소통'($P=0.007$), '응집력'($P=0.000$)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배우자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수발의 1차적 책임이 부인에게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한 김수현(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결혼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신뢰와 친밀감'($P=0.000$), '응집력'($P=0.001$)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부부가족($M=3.48$)이 확대가족($M=2.96$)보다 '신뢰와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고, 부부가족($M=3.52$)이 확대가족($M=3.07$)보다 '응집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대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의 형태보다 갈등이 많아서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지혜정, 2002)와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유은희(1974)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가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인 경우 '신뢰와 친밀감', '응집력' 부

분에서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형태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요인 중 '신뢰와 친밀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생활수준이 보통이다와 잘사는 편이다($M=3.57$)라고 응답한 사람이 신뢰와 친밀감에서 더 높았다.

월수입에 따른 '신뢰와 친밀감'($P=0.000$), '상호존중'($P=0.008$), '의사소통'($P=0.004$)과 '응집력'($P=0.003$)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즉, 소득은 결혼생활에 거는 기대를 증진시키는 변인으로서 경제적 수입이 사회계층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하류계층일수록 경제적 긴장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 긴장은 부부간의 적응과 같은 비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윤영, 1990; 김화자, 1991; 박성호,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생활비관리에 있어서 결혼만족도의 '응집력'과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2$). Duncan의 사후 검정 결과 기타($M=3.88$)가 관리하는 사람이 남편이 관리하는 사람($M=3.48$), 아내가 관리하는 사람($M=3.43$)보다 '응집력'이 더 높았는데 이는 결혼만족도는 생활비 관리를 누가 하느냐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력을 누가 갖는가는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응집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예상 밖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활동에 따라서 '신뢰와 친밀감'($P=0.005$)과 '의사소통'($P=0.021$)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M=3.56$)이 '신뢰와 친밀감'이 더 높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M=3.68$)이 '의사소통'이 더 높다.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대화의 소재를 갖고 상호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만족도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학력,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월수입으로 나타나 학력과 건강, 경제력 등임을 알 수 있다. 은퇴 전 직업은 '신뢰와 친밀감', '의사소통', '응집력'에서, 가족형태는 '신뢰와 친밀감', '응집력'에서, 사회활동은 '신뢰와 친밀감', '의사소통'에서, 성별은 '상호존중'에서, 연령과 결혼생활년수,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은 '신뢰와 친밀감'에서, 생활비관리는 '응집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만족도의 4개요인 중에서 '신뢰와 친밀감'이 14개중 11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요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노년기부부교육요구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요구

사회 인구학적 변인	교육요구	필요성	참여경험 유무	참여의향	교육 시간대	교육량	교육 진행방식	부부동반 동참의향	부부동반 불참이유
성별		0.100	0.180	0.098	0.054	0.273	0.847	0.833	0.114
연령		0.000	0.890	0.000	0.000	0.012	0.000	0.000	0.000
최종학력		0.071	0.500	0.000	0.413	0.000	0.098	0.014	0.219
결혼생활연수		0.000	0.206	0.000	0.000	0.080	0.000	0.000	0.000
종교		0.014	0.400	0.000	0.313	0.251	0.072	0.871	0.202
은퇴전의 직업		0.200	0.420	0.010	0.150	0.598	0.329	0.220	0.751
현재직업		0.032	0.369	0.024	0.001	0.372	0.010	0.030	0.429
본인 건강상태		0.020	0.075	0.008	0.508	0.037	0.344	0.019	0.020
배우자 건강상태		0.005	0.005	0.002	0.677	0.001	0.322	0.000	0.038
가족형태		0.026	0.680	0.002	0.000	0.058	0.026	0.028	0.001
주관적 생활수준		0.136	0.114	0.081	0.029	0.622	0.416	0.001	0.522
월수입		0.116	0.306	0.002	0.070	0.173	0.023	0.001	0.061
생활비 관리		0.037	0.009	0.005	0.021	0.000	0.117	0.360	0.096
사회활동		0.000	0.049	0.002	0.955	0.008	0.116	0.002	0.145

주) 공간상의 제약으로 각 영역별 p값만을 제시하였음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

노년기부부교육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연령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00)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결혼생활년수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00)가 있었으며,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교(P=0.014)와 현재직업(P=0.032)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20)를 보였는데 건강이 보통이다(M=3.79)

와 좋은 편이다(M=3.73)라고 응답한 사람이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05)가 있었는데 배우자의 건강이 보통이다(M=3.77)와 좋은 편이다(M=3.81)라고 응답한 사람이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26)를 보였다.

생활비관리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37)가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아닌 기타(M=4.43)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기타가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의 연구에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표 2-2>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

변인	구분	M	SD	F(T)	P
연령	50세~60세	3.85 b	0.75	10.745	0.000
	61세~70세	3.61 b	1.00		
	71세 이상	3.18 a	1.27		
결혼 생활 년수	15년~19년	3.92 b	0.51	8.451	0.000
	20년~29년	3.88 b	0.70		
	30년~39년	3.79 b	0.81		
	40년~49년	3.70 b	1.01		
	50년 이상	3.02 a	1.26		
종교	있다	3.79	0.90	6.124(T)	0.014
	없다	3.53	0.99		
현재의 직업	노동·기타(무직)	3.49 a	1.02	2.340	0.032
	제조업·공업·광업	3.91 ab	0.68		
	농·임·축·수산업	3.83 ab	1.05		
	서비스업	3.75 ab	0.81		
	사무직	3.91 ab	0.54		
	행정직·전문기술직	4.25 ab	0.50		
전문직	4.40 a	0.55			
본인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42 a	1.06	3.978	0.020
	보통이다	3.79 b	0.92		
	좋은편이다	3.73 b	0.86		
배우자의 건강 상태	나쁜편이다	3.41 a	1.03	5.366	0.005
	보통이다	3.77 b	0.94		
	좋은편이다	3.81 b	0.84		
가족 형태	부부가족	3.62 ab	1.08	3.141	0.026
	핵가족	3.81 b	0.74		
	확대가족	3.28 a	1.16		
	기타	3.88 b	0.86		
생활비관리	남편	3.76 ab	1.05	2.863	0.037
	아내	3.64 a	0.91		
	자녀	3.25 a	1.16		
	기타	4.33 b	0.49		
사회활동	그렇다	3.99	0.72	12.625(T)	0.000
	아니다	3.57	1.00		

*Duncan 의 사후검정: 같은 문자가 있는 열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α=0.05)

사회활동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은 유의한 차이($P=0.000$)가 있었다. 즉,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M=3.99$)이 '노년기부부교육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연령, 결혼생활년수, 사회활동 여부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가장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 행정·전문직인 직업,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 배우자의 건강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 핵가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노년기부부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

노년기부부교육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건강상태($P=0.005$), 생활비 관리($P=0.009$), 사회활동($P=0.04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의 건강이 좋은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부부교육에 대한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관리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와 기타의 경우가 '부부교육 참여경험'이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이 부부교육에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교육 참여경험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부교육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

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연령, 학력, 결혼생활년수,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P=0.000$)를 보였으며, 은퇴 전 직업($P=0.010$) 현재의 직업($P=0.024$)은 사무직, 행정직·전문기술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본인 건강상태($P=0.008$), 배우자 건강상태($P=0.002$), 가족형태($P=0.002$)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가족, 핵가족, 기타 형태인 집단이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은 유의한 차이($P=0.002$)가 있었다.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 행정·전문직인 직업,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 배우자의 건강도 좋다고 느끼는 사람, 핵가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시간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노년기부부교육 시간대'를 살펴보면 연령($P=0.000$), 결혼생활년수($P=0.000$), 현재의 직업($P=0.001$), 가족형태($P=0.000$), 주관적생활수준($P=0.029$), 생활비 관리($P=0.021$)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 중에서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교육받기를 요구했다. 60세 미만은 사회활동이나 기타 낮 동안의 활동이 있으리라고 추측할 때 저녁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이 높고 결혼생활년수가 긴 사람들일수록 오전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교육받기를 요구했다. 노년기부부교육은 교육대상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5)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교육량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노년기부부교육 교육량'은 연령, 학력,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 생활비관리, 사회활동여부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71세 이상의 사람들은 교육량을 1시간미만을 요구했고, 학력이 고졸이상인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요구했고, 초졸 이하의 사람들은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교육량을 1-2시간을 요구했고, 건강이 나쁜편이다와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1시간미만을 요구했다.

이상의 결과는 노인의 교육량은 평균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시간과 방법에 융통성과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진행방식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노년기부부교육 진행방식'은 강사강의, 토론과 대화, 강의와 토론 기타로 나누어 살펴봤다.

연령, 결혼생활년수, 현재의 직업, 가족형태, 월수입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71세 이상인 사람과 결혼생활년수가 높을수록 진행방식을 주로 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동적방법의 교육형태를 요구했다.

결혼생활년수가 15~19년인 사람들은 토론 및 대화를 나누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직업에 따라서는 노동·기타(무직)인 사람들은 주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강

의와 토론을 함께 하는 방법의 형태를 요구했다.

‘노년기부부교육 진행방식’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전문강사의 강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강의를 듣는 수동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이 낮고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토론과 대화의 진행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융통성있는 프로그램 적용이 요구된다.

7)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부부 동반참여의향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연령($P=0.000$), 학력($P=0.014$), 결혼생활년수($P=0.000$), 현재의 직업($P=0.030$), 본인의 건강상태($P=0.019$), 배우자의 건강상태($P=0.000$), 가족형태($P=0.028$), 주관적 생활수준($P=0.001$), 월수입($P=0.001$), 사회활동($P=0.002$) 등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직업이 사무·행정·전문기술, 전문직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부부가족과 핵가족인 경우가 부부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결혼생활년수는 20~49년 사이의 부부가 ‘부부동반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사료된다.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 불참여이유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교육 ‘노년기부부동반불참여이유’를 살펴보면 연령($P=0.000$), 결혼생활년수($P=0.000$), 가족형태($P=0.001$), 본인의 건강상태($P=0.020$)와 배우자의 건강상태($P=0.038$)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61~70세인 사람들은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 불참여이유’로 배우자가 싫어할 것이라고 하였고 50~60세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다. 이는 노년기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지 않고 나이들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어색한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결혼생활년수가 29년 이하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고,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와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모두 ‘노년기부부동반불참여이유’로 배우자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한편으로는 노년기부부교육 불참여이유가 ‘부부생활에 만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고, 상대가 싫어할 것 같아서’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부관계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대가 시간이 없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반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소수이긴 하지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에도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9) 노년기부부교육 내용과 중요도

부부교육 내용과 중요도는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년기부부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와 같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부부에게 필요한 부부교육내용으로는 ‘부부의 건강관리와 영양(78.3%)’, ‘노후생활준비(66.5%)’, ‘기분좋은 대화법(62.7%)’ 등의 순이었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교육내용은 ‘아들, 며느리와 잘 지내기(60.4%)’, ‘좋은 조부모되기(49.2%)’, ‘경제관리와 돈 벌이(4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노년기부부교육내용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이 상이한 것은 부부관계보다 자녀, 며느리, 손자녀와 관련된 가족관계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노년기부부교육을 연구영역에서 제외시켜 온 원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 중 내 번째는 공히 부부관련 내용(부부갈등 해결하는 방법,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부부관계 새롭게 만들기 등)을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성격이해하기, 부부역할 등 노년기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의 노인은 단독가구를 형성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될 것이며, 개인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강해지리라고 볼 때 노년기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에 더욱 관심이 증대하리라고 사료된다.

3.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년기부부교육의 필요성, 참여경험유무, 참여의향, 부부동반참여의향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표 2-3〉 노년기부부교육에 필요한 내용과 중요도

내용	노년기부부에게 필요한부부교육내용			중요도		
	빈도	열%	순위	빈도	열%	순위
심리적 변화와 위기	95	29.5	17	45	14.0	16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178	55.3	4	56	17.4	14
부부관계 새롭게 만들기	148	46.0	11	109	34.0	4
부부의 역할	164	50.9	7	55	17.1	15
성생활	69	21.4	19	78	24.3	9
성격 이해하기	165	51.2	6	94	29.3	6
생활습관 바꾸기	110	34.2	16	83	25.9	8
아들,며느리와 잘지내기	158	49.1	8	194	60.4	1
노후생활준비	214	66.5	2	20	6.2	19
경제관리와 돈벌이	90	28.0	18	130	40.5	3
자신을 잘아는것(자아정체감)	112	34.8	15	74	23.1	10
애정감정표현 방법	124	38.5	14	68	21.2	11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178	55.3	4	42	13.1	18
부부 건강관리와 영양	252	78.3	1	61	19.0	13
기분 좋은 대화법	202	62.7	3	105	32.7	5
여가활동(취미, 모임, 봉사활동)	149	46.3	10	68	21.2	11
좋은 조부모 되기	135	41.9	13	158	49.2	2
원만한 대인관계형성하기(친척, 친구관계)	151	46.9	9	88	27.4	7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136	42.2	12	43	13.4	17
기타	3	0.9	20	2	0.6	20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결혼만족도의 영역에서 '신뢰와 친밀감'(P=0.000), '상호존중'(P=0.006), '응집력'(P=0.044)이 '부부교육의 필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와 친밀감'(B=0.474)과 '응집력'(B=0.208)이 높을수록 '부부교

육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존중'(B=-0.257)이 낮을수록 '부부교육 필요성'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친밀감'(β=0.312)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결혼만족도의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명력은 약 17%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경험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 '노년기부부교육 참여경험'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본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1〉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β	T	P	R ²	F	P
신뢰와 친밀감	0.474	0.312	4.193	0.000	0.172	11.032	0.000
상호존중	-0.257	-0.181	-2.783	0.006			
의사소통	-0.124	-0.085	-1.309	0.192			
응집력	0.208	0.132	2.026	0.044			

〈표 3-2〉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P	R ²	χ ²	P
신뢰와 친밀감	0.097	0.473	1.102	0.838	0.089	13.330	0.038
상호존중	0.477	0.394	1.612	0.226			
의사소통	-1.046	0.453	0.351	0.021			
응집력	-0.664	0.456	0.515	0.146			

결혼만족도의 영역에서 '의사소통'(P=0.021)이 '노년기 부부교육 참여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B=-1.046)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부부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보다 2.8배(OR=1/0.351) 더 많이 부부교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본 결과는 <표 3-3>과 같다.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뢰와 친밀감'(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신뢰와 친밀감'(B=-1.688)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5.4배(OR=1/0.185) 더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높았다. '신뢰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부부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부부교육 요구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뢰와 친밀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P=0.000). 즉, '신뢰와 친밀감'(B=-1.184)이 낮을수록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이 높은 것

로 나타났다. '신뢰와 친밀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3.3배(OR=1/0.306) 많이 부부동반참여의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년기 생활주기의 연장으로 더욱 중요해진 노년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한 부부교육에 대한 중노년기 부부들의 요구를 밝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년기부부교육프로그램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신뢰와 친밀감' 변인이 가장 많은 사회인구학적변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부교육내용에 신뢰와 친밀감증진을 위한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혼만족도의 4개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사회인구학적변인은 학력, 본인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건강상태, 월수입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 직업은 '신뢰와 친밀감', '의사소통', '응집력'에서, 가족형태는 '신뢰와 친밀감', '응집력'에서, 사회활동은 '신뢰와 친밀감', '의사소통'에서, 성별은 '상호존중'에서, 연령과 결혼생활년수,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은 '신뢰와 친밀감'에서, 생활비관리는 '응집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학력에 따라

<표 3-3>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P	R ²	χ ²	P
신뢰와 친밀감	-1.688	0.324	0.185	0.000	0.276	72.183	0.000
상호존중	0.332	0.249	1.394	0.182			
의사소통	-0.005	0.251	0.995	0.983			
응집력	0.261	0.278	1.298	0.348			

<표 3-4>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OR	P	R ²	χ ²	P
신뢰와 친밀감	-1.184	0.303	0.306	0.000	0.213	54.360	0.000
상호존중	0.072	0.239	1.075	0.763			
의사소통	-0.249	0.253	0.779	0.324			
응집력	-0.155	0.272	0.856	0.569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교육에 의해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노년기부부교육요구

노년기 '부부교육의 필요성'은 연령이 낮고 결혼생활년수가 짧으면서 종교가 있으며, 핵가족이고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교육 참여경험은 배우자가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 참여경험이 있었다.

'노년기부부교육 참여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결혼생활년수가 짧을수록, 행정·전문직종사자이었던 본인과 배우자가 건강하고 월수입이 높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판단되며 이들이 보다 질 높은 부부관계증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노년기부부교육요구참여의향'을 지닌 부부들의 특성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고,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교육요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이라는 것이 일부 갖추어진 계층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노년기부부교육내용에서 필요성의 순위는 건강이 1위, 부부관련내용이 2위였으나, 중요도의 순위에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노년기부부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량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시간미만을, 학력이 높고 본인과 배우자가 건강한 사람은 1~2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교육량은 평균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상에 따른 교육량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선호하는 노년기교육진행방식은 연령이 높고, 결혼생활년수가 길며 확대가족인 경우 전문강사의 강의를 듣는 수동적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부부교육 부부동반참여의향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고, 핵가족이면서 주관적 생활수준이나 월수입이 높은 사람이 부부동반으로 교육에 참여하고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부부교육의 불참여이유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싫어할 것이다', '배우자가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은 경우 불참을 하겠다는 것은 노년기

부부교육에 대한 어색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노년기부부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노년기의 과업임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부부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부부의 건강관리와 영양'이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으며, '노후생활준비', '기본좋은 대화법', '배우자에 대한 이해증진 및 부부갈등 해결방법', '성격이해하기', '부부역할'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년기에는 부부관계증진에 앞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부간의 대화나 이해, 갈등해결, 성격이해 등의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내용의 요구가 높게 나타나 노년기부부관계증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년기부부교육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는 '아들·며느리와 잘 지내기', '좋은 조부모 되기', '경제관리와 돈벌이'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내용요구와 중요도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교육을 받고 싶은 것과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는 가족관계를 부부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주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부간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다른 가족원들에게도 파급효과를 준다는 가치를 교육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3. 결혼만족도가 노년기부부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는 노년기부부교육요구의 영역 중에서 부부교육의 필요성, 참여경험, 본인참여의향, 부부동반참여의향 등의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뢰와 친밀감'과 '응집력'이 높을수록 '노년기부부교육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교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신뢰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본인의 참여의향과 부부동반참여의향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신뢰와 친밀감'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년기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년기부부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노년기부부교육의 내용에는 신뢰와 친밀감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학력과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건강이 바탕이 되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노년기부부교육요구는 건강하고 연령

도 낮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높은 교육요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노년기에 접어든 연령층에게 노년기부부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교육 중에 부부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정된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로의 제한점을 갖으며, 노년기교육 참여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참여의향과 불참여유가 '시간이 없어서나 변화가능성이 없어서'에 다수가 응답한 결과를 볼 때 노년기부부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노년기 부부교육, 배우자, 결혼만족도, 부부관계향상

참 고 문 헌

- 강미선 (1991). 단독가구 노인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정자 (1998). 맞벌이 부부의 직업관련변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 36(4).
- 김명자 (1989). *중년기 연구*, 교문사.
- 김미정 (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우 (2002). 노년기 부부의 의사소통행동과 결혼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1999).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1). 노인여가시설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 (1999). 중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198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전길양 (1997). 노년기 부부의 상호간 지지와 역할 공유,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Vol. 71(2).
- 김태현, 한희선 (1995). 노년기 부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9호.
- 김혜경 (1996). 노년기 부부관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1982).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현주, 이기숙 (2001).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초기 부부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40(11).
- 서광희 (1992). 농촌주부의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동인, 정현숙 (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손승영 (1994).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 송영미 (2000). 노년기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아 (1996). 중년기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14(1)
- 신외숙 (2002). 중년기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연 (1994). 노인의 가정생활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분석과 교육프로그램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희 (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15(4).
- 오윤자 (1994).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연구-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6). *한국가족의 기능연구-대내적 기능을 중심으로*, 교문사.
- 유은희 (1974). 한국도시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 (1990). 노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가옥 (2000). 노년기의 삶의 질. 성공회대학교,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 이기숙 (1988). 가족주기에 따른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6(1).
- 이성희 (2002). 부부관계강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20(6)
- 이신숙 (1997). 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7(2). 70-84.
- 이우복 (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 유영주 (1986). 결혼만족도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4(1).
- 이정은 (2000). 개인의 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

- 과 결혼만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미 (2001). 30-40대 부부의 관계향상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 유영주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3(1)
- 조병은, 송말희 (1993). 농촌주부의 배우자 역할 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Vol. 31(1).
- 조은숙, 고선주, 옥선화 (1998).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 후 결혼적응에 대한 이중ABCX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 1(1)
- 지혜정 (2002).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2002). 농촌부부평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20(3).
- 최혜경, 박의순, 노치영 (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 1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가족생활실태조사.
- 허윤정 (1997). 부부관계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제영 (1999). 노년기 부부의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TB (1993). *Conjugal Support among Working-Wife and Retired-Wife Couples*, Beverly Hills. CA: Sage, 174-188.
- Brubaker, TH (1992). *Responsibility for Household Tasks*,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Connidis, IA (1989). *Family Ties and Aging*, Toronto & Vancouver: Butterworths.
- Dorfman, LT, Heckert, DA(1988). Equ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Family Relations*, 37.
- Gilford, R (1986). Marriage in Later Life, *Generations*, 10, 16-20.
- In Szinovacz, M., Ekerdt, D. J., & Vinick, B. H. (Eds). *Families and Retirement*.
- Lopata, H (1993). The Interview of Public and Private: Woman's Challenge to American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 OECD (2004). <http://www.naver.com>
- Roach, AJ, Frazier, LP, Bowden, S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 Rollins, BC, Cannon, KL (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2005. 02. 11 접수; 2005. 12. 03 채택)